

## 박성현, CF촬영 갔다가 타이거 보고 '감격'

어려서부터 타이거 우즈를 동경하며 골프를 해온 박성현(26)이 '골프 황제' 우즈(44·미국)를 7일 처음으로 만나고는 감격에 겨워 곧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타이거와 함께한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글을 썼다.

7일 골프용품업체 테일러메이드 광고 촬영이 열린 플로리다주 메달리스트 골프장.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성현의 앞에 예고 없이 우즈가 나타났다. 테일러메이드가 미리 계획한 깜짝 선물이었다. 이날 만남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박성현은 우즈가 나타날 때까지 함께 촬영하는 줄 몰랐다고 한다.

테일러메이드 측은 "신제품에 적용한 기술 '스피드 인젝션'을 강조하고자 박성현과 우즈의 만남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

두 선수는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

박성현은 현지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우즈를 보면서 동시대에 그와 함께 플레이를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클럽을 사용하는 것도 자부심이 생긴다." 고 말했다. 우즈는 "박성현의 스윙은 임팩트가 상당히. 항상 스위트스팟을 노린다. 매번 드라이버 샷이 똑같다. 앞날이 창창해 보인다." 고 칭찬했다.

평소 임버릇처럼 "타이거 우즈의 팬" 이라고 말하는 박성현은 장타력과 거침없이 홀을 공략하는 모습 때문에 '여자 타이거 우즈' 라 불리기도 한다. LPGA 투어는 2017년 데뷔 첫째 눈부신 활약을 펼친 박성현을 소개하면서 "마치 타이거 우즈처럼 매 대회 이기기 위해 나오는 선수" 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촬영된 홍보 영상과 사진은 미국과 전 세계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로 배포될 예정이다.

## MLB에서 '원포인트 릴리프' 사라질까

메이저리그에서 더 이상 '원 포인트 릴리프' 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5일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슬레틱에 따르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선 가운데 손질을 논의 중인 MLB 사무국이 경기 시간 단축(스피드업)을 위해 선수노조에 한 투수가 타자를 최소 3명 이상 상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야구규칙에 따르면 마운드에 올라온 투수는 최소 한 타자를 상대해야 교체가 가능하다. 이 규칙 덕분에 '원포인트 릴리프' 가 가능했다. 다만, 이 규칙이 선수노조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왼손 불펜 투수들의 '직업' 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투수교체가 줄어들면 경기 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 메이저리그 경기 시간은 최근 7시즌 동안 크게 늘었다. 최근 7시즌의 경기 시간이 역대 가장 경기 시간이 길었던 기록 8개 안에 모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밖에도 11회 이후주자를 2루에 두고 시작하는 '변형 승부차기'

제도, 20초 투구 시간 제한, 마운드 방문횟수 6회 이내 제한 등 여러가지 개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선수노조는 대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내셔널리그에도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CBS 스포츠는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제안이 당장 올 시즌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 도입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다. MLB 사무국의 제안이 더 가까운 시기에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각 구단들이 엔트리에 투수 13명을 포함했지만, 한 투수가 타자를 최소 3명 이상 상대해야 한다면 엔트리 투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야수 활용 폭이 넓어지고, 대타 요원들에게는 더 좋을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 "각 팀들은 더 오래 던질 수 있는 불펜 투수를 찾게 될 것이다. 불펜 투수들은 강하게 던지기보다 맞춰잡으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삼진 비율이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 스타 입지 다진 손흥민, 첼시 이적설 '술술'

손흥민(27, 토트넘 홋스퍼)이 첼시로 이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마이데일리' 에 따르면 영국 매체 아이풋볼은 전날 첼시가 손흥민의 이적료로 8,000만 파운드(약 1,200억 원)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주급의 3배를 제안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약 2억 원을 받고 있다. 첼시가 6억 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프리미어리그(EPL) 최고 수준에 속한다. 알렉시스 산체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받고 있는 주급 7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매체는 로만 구단주가 손흥민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손흥민이 첼시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던 소식은 그만큼 최근 활약이 뜨겁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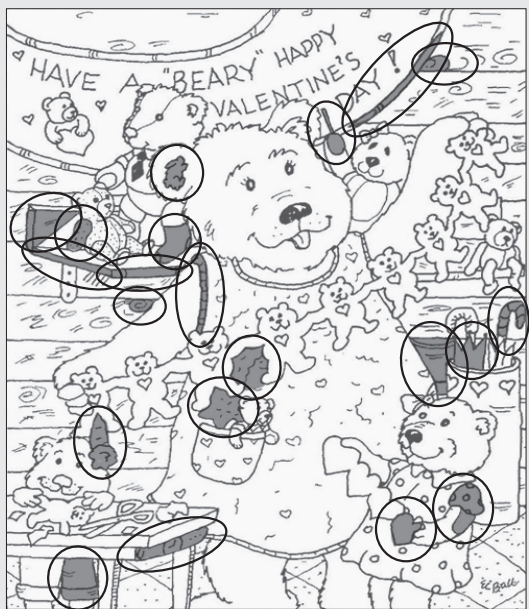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쳐 토

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세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정상급 공격수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지난 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문제까지 해결했다. 유럽 생활을 이어가는데 걸림돌까지 사라졌다.

첼시 이적설은 손흥민의 몸 값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단순한 관심일수도 있지만, 손흥민의 최근 활약이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얘기다. 이를 증명하듯 축구 전문 '티포풋볼' 은 5일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의 리더가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압박 상황에서도 볼을 원하고 있고 경기에서 이기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외에도 열정적인 결단력으로 경기를 추격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특히 이 매체는 "손흥민의 토트넘 내에서 지위가 향상됐다." 면서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슈팅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할 뿐 아니라 실제 그런 기회를 갈망하는 시점에 도달한다." 고 강조, 손흥민이 서서히 스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융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융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1. 일반 주택융자
2. 재융자: Cash out 재융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융자
3. 정부 주택융자: FHA, VA 융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